

곡성군,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 교육

삼강원 · 인정원

곡성군은 지난 2일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인 삼강원과 인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강 보건 교육과 음주 및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장애인 돌보기와 바빠 정작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을 먼저 지켜야 한다.

이에 따라 곡성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시설 종사자들에게 생활건강 관리 수칙을 교육하게 됐다.

교육은 먼저 구강건강을 위한 올바른 칫솔질 방법, 치실 및 칸간 칫솔 사용법, 틀니 사용법, 스켈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안내하는 내

용으로 진행됐다. 이어 담배가 구강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흡연으로 인한 아이들의 간접흡연 폐해 등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술과 담배를 함께 즐길 때 건강에 더욱 치명적임을 강조하면서 곡성군 보건의료원에서 운영 중인 금연클리너를 홍보하기도 했다.

교육에 참여한 시설종사자들은 평소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하며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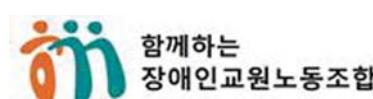
강생활 실천을 다짐했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장애인이나 시설 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해 구강 건강, 절주, 금연 등 건강

생활 습관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희 기자

국내 첫 장애인교원노조 출범...교권보호 추진



장애인 교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우리나라에서 탄생한다.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는 오는 6일 서울 동작구 교사노조연맹 대회의실에서 노조 출범식 및 창립총회를 갖는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 관련 노조도 국내선 처음

전체 교원 중 장애인교원은 1.5%

근무 환경 개선 · 교권 보호 나서

아들은 장애인교원노조 설립은 세계 최초라고 주장했다. 장애인교원노조가 국내에 설립되는 것은 처

음이다.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장애인

교원 수는 약 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교원 대비 1.5% 수준이다.

이들은 "교육현장에서 장애인교원은 소수로 치부됐고 우리들의 작은 권리 하나 주장해 줄 교원단체도 전무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교원은 ▲보조인력 ▲보조장치 ▲웹 접근성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침입총회에서는 상급단체 기업 여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현재

까지 1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했으며 전국 규모로 조합원 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조 공식 출범 후 장애인교원의 전문성 신장, 근무 환경 개선, 교권 보호 활동 등 관련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각장애 교사인 이인호 준비위원장은 "스스로의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현장에서 고군분투한 장애인교원들의 든든한 베텁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드론 전문가 육성

15세 이상 구직 장애인 대상 조종사 양성 교육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원장 정호연)은 드론 전문가 육성을 위한 '드론조종사양성 교육훈련과정'을 7월부터 시작한다. 15세 이상 구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본 교육은 드론 조종 훈련을 중심으로 드론의 전제적인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광주, 전남, 전북에 거주하고 있

는 15세 이상의 취업을 희망하는 드론에 대한 관심과 취업에 대한 열정이 있는 장애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은 드론 조종사 자격 취득을 목표로 매주 월~금요일(오전 9시~오후 5시) 드론 운용에 대한 기본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수시모집 체제로 언제든지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4개월 ~ 6개월이다.

교육은 전액 국비 지원되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생에게는 숙식과 매월 28만원 상당의 훈련수당 및 교통비가 지원된다. 또한 훈련기간 중에는 상해보험 가입과 함께 취업 알선 및 직무적용지도까지 이루어진다. 전남직업능력개발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해 교육신청을 하면 선발평가를 통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전남직업능력개발원 정호연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경쟁력 있는 자원을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1월 21일에 2019년도 교육훈련을 개시한 전남직업능력개발원은 호남·제주지역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과 직업재활을 위해 2002년에 개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장애인 전용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다.

특화훈련, 융복합훈련, 산학연계 훈련 등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전남도교육청과 연계해 빌딩장애인직무체험관을 개설하여 빌딩장애 학생들의 직업탐색을 돋우고 있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오늘 출범

지방정부 현금복지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

중앙·지방 정부간 복지사업 영역을 재정립하고, 지방정부의 현금복지 정책을 재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될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출범한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4일 정오 충남 이산시 KTX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향후 운영 계획을 밝힌다.

또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출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신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방정부 현금복지 정책을 전수조사해 '현금성 복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7월1일 현재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3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복지·재정·갈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

하고, 지문위원회와 시민 대표를 특위에 참여시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다수의 기초단체장이 "지방정부가 제각각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로 인해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새로 도입된 자자체의 복지정책 668건 가운데 현금성 복지정책은 446건으로 66.7%에 달했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27일 염태영 수원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발족식을 하면서 특위 출범을 준비해왔다.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은 준비위원회 발족식에서 "이동 수당과 같은 보편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길 5

Together Gwangsan